



“옷걸이 폭·높이 조절로 깊은 주름 ‘짹’ 펴주죠”

스탠드형 스티프다리미 시장은 환경 회생학과 등 국내 중견기업과 필립스 테팔 등 글로벌 기업의 각축장이자 다름없다. 서서 손쉽게 다림질을 할 수 있는 이점 덕분에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자 떠나없이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에서 소형 가전업체가 톱톡 튀는 아이디어 제품으로 틈바구니를 파고들고 있다. 아이언맥스(사장 이상훈)가 주인공이다. 다림질할 때 쓰는 옷걸이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하고 옷을 팽팽하게 잡아주는 기술로 도전을 던졌다.

◆‘왕바다’ 옷걸이로 다림질 개선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으로 뽑힌 아이언맥스의 스탠드형 스티프다리미 ‘왕바다’는 특화된 옷걸이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스탠드형 스티프다리미는 넓혀서 다림질하는 것에 비해 편리하지만 옷의 주름이 잘 다려지지 않는 게 단점으로 꼽혔다. 옷걸이에 걸어놓고 스티프로 주름을 펴다 보니 옷이 고정되지 않는데다 주름이 깊으면 펴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언맥스 왕바다의 옷걸이는 편리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탠드형 스티프다리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설계했다. 옷걸이 크기가 위아래뿐 아니라 좌우로도 조절되면서 옷을 꼭 잡아 퍼준다. 펼쳐진 옷에 스티프다리미를 대고 다림질을 하면 너털너털한 상태보다 다림질 효율이 크게 좋아지는 원리다.

이 사장은 “스티프다리미 기술이 꾸준히 발전해 지금은 다들 어느 정도 잘 만들지만 옷걸이는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며 “옷걸이에 특화된 제품은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림질 불편 때문에 직접 제작이 사장이 이 제품을 생각해 낸 것

아이디어로 틈새 공략

다림질 하다가 제작 결심

중기청 지원 신제품 디자인

홍소핑 판매 등 마케팅 강화

은 2010년께다. 작업용 안전화에 들어가는 밑창을 일본에 수출하는 일을 했던 그는 맛별이하는 아내를 돕기 위해 집안 다림질을 도맡아 하면서 제품을 구상했다. 다림질할 때 쓰던 스탠드형 스티프다리미가 불편했던 게 계기였다. 옷걸이에 걸 옷을 고정하려고 왼손으로 이리잡고 저리잡고 하다가 스티프다리미에 손을 대기도 했다. ‘옷걸이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불평하던 이 사장은 직접 ‘쓰기 편리한 옷걸이’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다.

1년가량 만들었다 부챗살을 반복한 끝에 제법 그럴듯한 제품이 나왔다. 관련 특허를 등록하고 회사를 세워 판매에 나섰다. 자금이



이상훈 아이언맥스 사장이 옷걸이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 가능한 ‘왕바다’를 적용한 스탠드형 스티프다리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충분치 않아 대형 마트나 홍소핑 판매는 꿈도 못 꿔고 인터넷 쇼핑몰과 홈페이지 등에서 조금씩 팔았다. 그러면서 제품을 계속 개선해갔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제품 판매 문의도 들어왔다.

지난달에는 경남 김해시가 비용을 대줘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가 주최한 베트남 한국우수상품 전시상담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준비해 간 제품뿐 아니라 전 시품까지 모두 팔릴 정도로 현지에서 반응이 좋았다”고 이 사장은 전했다.

◆바지 주름 잡는 신모델 예정 아이언맥스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만 5000대가량 제품을 팔았다. 수백만대를 판 환경회생학과 등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시장은 자신감이 넘친다. 내년엔 바지까지 팽팽하게 펴서 다림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 중인데 시제품만 보고도 사람들 반응이 뜨겁기 때문이다. 마네킹에 옷을 입힌 것처럼 해서 상하의 모두 다림질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디자인 개선도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청의 연구개발(R&D) 자

금을 받아 전문 디자인회사에 의뢰했다. 현재는 중국 업체에 생산을 맡겨 봤지만 앞으로는 한국에서 자체 생산해 품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VC) 등에서 자금 유치도 계획하고 있다. 자금 유치가 성공하면 홍소핑에도 제품을 내놓고 마케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안재광기자 ahnjik@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두손의 크린셀 세탁세제 (032)577-3760 △루바니의 유니폼보 보온보냉가방 (02)1588-0647 △아이언맥스의 왕바다형 스티프다리미 (055)312-7610 △뉴젓사우나의 원적외선 사우나기 (031)311-3640

새 회장 취임 후 바빠진 삼산련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뉴스카페

장학기금 마련 등반대회 한·중 FTA 설명회 개최



지난 15일 삼산련 관계자들과 관악산에 오르고 있는 성기학 회장. 삼산련 제공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이 신임 회장을 맡은 뒤 어느 때보다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성 회장이 추대된 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 굵직한 외부 변수까지 맞물려 분주한 모습이다. 삼산련은 섬유패션업계의 우수인재를 키우기 위한 장학재단 기금 마련 등반대회를 가진 데 이어 한·중 FTA가 섬유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섬유업계에선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을 갖고 있는 성 회장 스타일이 삼산련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며 반기고 있다.

삼산련은 지난 15일 관악산에서 ‘삼산련 장학재단 기금 마련 등반대회’를 열었다. 성 회장을 비롯한 최태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회찬 삼산련 명예회장, 박상태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이사장 등 섬유패션업계에 종사하는 1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삼산련 관계자는 “2011년부터 장학기금 마련과 업계 관계자들의 소통을 위해 진행해온 등반대회인데 올해는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삼산련은 이번 등반대회 참가비(3만원)를 모아 삼산련 장학재단 기금으로 기부했다. 총 100여

원을 목표로 시작한 재단 기금은 현재 26억원이 모였다. 삼산련은 매년 섬유패션 전공 대학생, 대학원생 51명과 특성화고 학생 5명에 총 3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성 회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다른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콜핑 캠퍼스 위비스텍 산엔터프라이즈 삼일방직 웰크론 동일방직 더울 등 10여개 기업들은 등반대회 참가자용 기념품을 마련했다. 성 회장은 등반대회에서 “국내 섬유패션업계 종사자들이 업종과 지역을 초월해 한마음 한뜻으로 장학재단 기금 마련을 위해 모여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체 섬유인이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자”고 강조했다.

삼산련은 18일에는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한·중 FTA 섬유분야 협상결과 설명회’를 갖는다. 민지혜기자 spop@hankyung.com

재기 중기인 ‘신용불량’ 조기 삭제

중기청, 재창업 기업 대상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 기업인이 과거 부도나 폐업으로 얻은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에 삭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뒤 재창업지원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 기업인들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5년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 대상으로 등록돼 금융회사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조치로 재기 기업인의 개인회생 등 공공정보가 즉시 삭제되고 금융사 간 공유도 제한된다. 중기청은 재기 기업인의 신용등급이 향상돼 신용카드 발급 및 금융거래 등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000)의 각 지역본부나 지부 재창업자금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추기영기자 gychu@hankyung.com

에스원, 레이더 감지기술 전수 협약

케이엠티가 생산·판매 맡아

에스원(사장 윤진혁·사진)은 지난 14일 보안감지기 제조업체 케이엠티와 외곽펜스형 레이더 감지기 생산에 대한 기술전수협약을 맺었다.

에스원은 케이엠티에 레이더 감지기 기술 원리와 설계 노하우, 양산 기술 등을 전수하며 케이엠티는 이를 상품화해 국내의 판매를 맡는다. 에스원 관계자는 “점차 수요가 늘고 있는 외곽펜스형 레이더 감지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케이엠티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확보할 수 있어 동반 성장에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곽펜스형 레이더 감지기 기술은 송신주파수를 변조해 거리 측정이 가능하며 폐쇄회로 TV(CCTV)와 연계해 군사 기성 등에 활용되고 있다.

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한국도자기 강남 최대 매장 오픈

한국도자기는 최근 서울 논현동 구거리에 생활용품 전문매장을 열었다. 최고급 브랜드 ‘프라우나’를 비롯해 한국도자기의 모든 제품을 판매하며 북유럽 스타일 주방브랜드 ‘텐스크’, 프랑스 소믈리에 챔피언이 만든 와인잔 ‘레만글라스’ 등 한국도자기에서 단독 수입하는 해외 상품들도 갖췄다. 지하 1층~2층 규모로 한국도자기의 강남권 최대 매장이다. 2층에는 구형반상기 등 예단용 도자기를 판매하며 상담 코너를 따로 마련했다.



“제가 만든 집 어때요?” 서울 논현동 건설서관에서 16일 열린 ‘제3회 어린이가 만드는 미래건설산업 창의력 경진대회’에서 한 어린이가 레고 블록으로 집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5년, 전 세계에서 투자하기 가장 유망한 지역은 첫째도 미국, 둘째도 미국이다!”
- 세계적 자산운영사(305조 원) [파렐리티 월드와이드 인베스트먼트] 주식부문 COO, 도미니 로시 퍼넬리티

세계 투자자들의 대勢, '미국 주식 투자 실전 가이드북'

전자상거래 세계 1위, 중국 기업 알리바바는 왜 미국에 상장했을까?

애플 뛰고 알리바바 날고!

최근 2년간 미국 VS 한국 수익률?

미국 나스닥	48%	한국 코스피	8%
--------	-----	--------	----

지난 5년간 미국 VS 한국 수익률?

미국 나스닥	126%	한국 코스피	28%
--------	------	--------	-----

세계 시가총액 2위, 거래대금 3위

거대한 중국 주식 시장이 후강통으로 '세계를 향해 문을 활짝 열다!'

지금 중국 주식 천만원이면 10년 후 강남 아파트를 산다

일본, 한국 그다음은 중국이다!
중국 주식에 쫓긴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필독서!'

만약 당신이 1990년에 삼성화재에 투자하고 2007년까지 보유하였다면 500배라는 엄청난 수익, '천만 원'으로 '50억 원'을 만들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잃어버린 주식 20년을 '중국 주식에서 되찾자!'